

# 어떠한 적의 도발도 초전에 분쇄

## 대간첩대책 중앙회의 유시

1981년 1월 21일

국방 및 치안관계관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대망의 1981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여러분과 여러분의 마하장병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국가안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헌신해 온 여러분의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대내외적인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 헌정 질서 아래 희망찬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기틀을 굳건히 다져놓았습니다. 이는 치안과 변영 속에서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말겠다는 온 국민의 굳은 의지,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는 한국민의 저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국가보위와 치안확보에 최선을 다해 온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81년은 한 시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여는 영광스러운 제5공화국 창건의 해이며,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은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은채 온갖 도발책동을 더욱 격화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제6차 노동당대회를 계기로 족벌세습체제를 굳히면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대남공작 책임자를 중용한 것은 간첩침투를 격화시키고자 하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우기 올봄에 치르게 될 양대선거를 틈타 북한공산집단은 우리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허황된 정치선동을 강화하고 무장간첩의 침투를 획책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책략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모하게도 군사적 모험을 자행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행태의 침투나 공격을 기도해 온다 해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와 빈틈없는 치안확보에 계속 힘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전후방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북한 공산집단은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당 6차대회 이후 이를 강화하고 있는 징후마저 보이고 있어 국부적인 도발과 후방침투기도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울진·삼척 사건을 고려해 볼 때 1개대대 규모의 야간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해안을 이용한 무장간첩 침투와 주요 시설의 파괴 및 교란책동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전후방 모두 예상되는 적의 도발형태를 잘 분석하여 대응책을 수립,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대간첩 합동작전능력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적의 침투전술의 변화에 대비한 대응전술을 개발하고 합동 및 협동작전 능력의 배양, 군·경·민의 협력체제 강화, 주민신고조직의 재정비 강화 등 대간첩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강화하여 이 땅에 단 한명의 적이라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 대공사찰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고정간첩이나 불순 세력이 합법을 가장하여 잠입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악성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관은 물론 전국민 모두가 대공요원이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철저히 색출, 분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향토예비군의 전투력 강화입니다. 향토예비군은 내 마을, 내 직장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애향 애족심으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고 훈련이나 작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과위주의 훈련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적의 도발도 초전에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국방태세를 갖추고 이 바탕 위에 온 국민이 갈망하는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기필코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끝으로 관계자 여러분의 책임완수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여러분의 가일층의 분발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